

2021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추진요강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0. 3



Contents

인사말	03	2021년 제58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28
현장교육연구운동 개요	04	2021-2022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 해설	36
2021년 제6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06	현장교육연구운동 관련 법령	48
2021년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	18	한국교총 전자도서관 이용 안내	54

■ 인사말



늘어나는 학교폭력 및 각종 민원, 소송 등으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교육여건 속에서도 현장의 교원들은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및 자료개발 등 자발적인 현장연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교원들은 스스로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나아가 학교교육 전반의 변화를 계속해서 주도하며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교육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으며 그 중심은 교원이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교원들 스스로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학교 교육 개선 연구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1952년 10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충남 공주사범대학에서 '교육과정의 개조'를 주제로 제1회 전국교육연구대회 개최하여 교원의 자발적인 연구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70여 년 동안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등으로 이어진 교육계 최대(最大)·최고(最古)의 현장교육연구운동은 여전히 매해 수천여 명의 유·초·중등 교원 및 전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학교교육의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참여교원들이 현장교육연구운동 참여를 통해 자신의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해 돌아보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탐구하며 교원 스스로 전문성 신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사 자신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교육활동과 수업에 대해 탐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새로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학부모들에게 전달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 및 학교교육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회는 사회·경제·정치·문화 등 다방면에서 큰 변혁이 일어난다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 변혁에 대비하는 일은 교육 분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 2021~2022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를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무쌍한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본질을 잊지 않고 앞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갈수록 꿈을 잃어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장교육이 희망을 심어주고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미래의 학생들은 이를 통해 꿈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대주제를 바탕으로 한 현장교원들의 자발적인 연구가 앞으로 다가올 변혁의 사회를 대비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학교는 이러한 초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이루는 공간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을 더욱 변화시키는 핵심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현장의 교원들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라며, 우리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인 한국교총은 현장교원들의 다양하고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0.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하 윤 수

■ 현장교육연구운동 개요

1. 현장교육연구운동이란?

연구대회는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이나 교육행정 관련 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교육방법 연구, 자료개발, 제도개선, 교수활동 성과 등의 실적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대회이다. 이러한 연구대회는 한국교총이 1952년 10월 27일부터 28일 양일 간 충남 공주사범대학에서 개최한 전국교육연구대회가 효시이다. 현재 한국교총은 현장교육연구운동 사업으로 매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와 전국교육자료전,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많은 유·초·중등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1.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2021년도로 65회를 맞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국내 최대·최고의 연구대회로 한국교총이 17개 시·도 교총과 연대하여 주관하고 있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는 매년 1~3월 중에,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3~4월 중에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계획서를 당해 연도 3~4월에 시·도 교총으로 제출하고, 다음해 1~2월 중에 완성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전국대회에 출품된 연구보고서는 5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예비심사단계에서 보고서의 표절·모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본심사에서 선정된 1등급 후보작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등급을 부여한다.

2. 전국교육자료전

전국교육자료전은 우수한 교육자료를 교육현장에 소개하고, 교육자료 제작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유발하며,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70년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회이다. 교육자료전은 한국교총과 시·도 교육(과학)연구(정보)원 및 시·도 교총이 연대하여 주관하고 있으며 경기, 광주,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도는 해당 시·도 교총이 주관하고, 나머지 시·도는 해당 시·도교육청[시·도 교육(과학)연구(정보)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시·도 교육자료전은 매년 6~8월중에, 전국교육자료전은 10월 중에 개최한다.

교육자료를 출품하고자 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시·도 단위 주최·주관처별로 연구·제작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교육자료전시회는 시·도 교육자료전의 경우 시·도별 사정에 따라 2~7일간, 전국교육자료전은 1~2주간 전시회를 갖고 있다.

3.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1964년 최초 승인 당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계획과 실천, 지도, 평가를 포함하는 일련의 모든 교육활동을 기록·제작하는 「실천하는 연구대회」로 초등교육현장의 수업방법 개선과 질적 발전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현장의 실천적 연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56회 대회까지 운영해 오면서 한 차례의 공정성, 신뢰성, 시비 등의 문제없이 엄격하게 제규정을 준수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연구대회보다 질적·양적 수준면에서 우수하고 또한 일반화의 가치를 높게 추구하고 있다. 본 대회는 시·도 대회를 거치지 않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로 매년 8~10월에 개최하고 있다.

2. 연구 대주제

현장교육연구운동 연구 대주제는 1952년 「교육과정의 개조」로 설정한 이후, 2년 주기로 새로운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연구 대주제는 학교교육에 대한 현실 과제와 미래지향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에 의한 대주제 해설집을 간행하고 있다. 주제해설 내용은 주제에 대한 개념, 이론적 배경, 연구활동 내용, 연구방향, 구체적인 연구과제 등을 담아 제시하고 있다. 2021~2022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연구 대주제는 「변화하는 사회·선도하는 현장교육·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이다.

3. 출품 자격

- 1**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및 별표와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학직, 연구직(단,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의 경우는 초등교원과 초등교육전문직원에 한함)
※ 본 연구대회 및 타 연구대회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제재(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출품할 수 없음.
- 2**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여 1·2등급으로 입상한 연구보고서(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 3** 시·도 교육(과학)연구(정보)원 및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자료전에 출품하여 1등급으로 입상한 작품(전국교육자료전)
- 4**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시·도 대회를 거치지 않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므로 완성한 최종 연구보고서



2021년 제6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1. 출품방법 및 일정

현장교육연구를 하고자 하는 교원은 먼저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여야 하며, 동 대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1등급·2등급으로 입상하여야만 한국교총에서 주최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이 가능함(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 1등급·2등급 입상작은 반드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범위는 입상제도와 연계하여 매년 대회 인정권자의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

- ① 1차 연구보고서(연구계획서) 접수 : 2020. 3 ~ 4월
- ② 연구보고서 중간지도 및 연수 : 2020. 6 ~ 12월
- ③ 2차 연구보고서 접수 : 2021. 1 ~ 2월
- ④ 연구보고서 심사 및 시상 : 2021. 1 ~ 3월

※ 상기 계획과 일정은 시·도별 사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1차 연구보고서(연구계획서)는 5 ~ 10p 정도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여 시·도 교총에 제출함(세부사항은 소속 시·도 교총에 문의).

※ 연구계획서 체제 예시 : <붙임 1> 참조

2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한국교총 주최)

- ① 연구보고서 접수(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장 추천) : 2021. 3월초
- ② 연구보고서 예비심사 : 2021. 3월중
- ③ 연구보고서 본심사 : 2021. 4월중
- ④ 연구보고서 발표심사 : 2021. 4월중
- ⑤ 연구보고서 최고상심사(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 2021. 4월중
- ⑥ 최종 심사결과 발표 : 2021. 4월말
- ⑦ 시상식 : 2021. 5월중

※ 상기 계획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한국교총 홈페이지에 공지함.

2. 출품분과

교과분과영역 (10개 분과)	① 국어(한문 포함) ② 도덕 ③ 사회(역사 포함) ④ 수학 ⑤ 과학 ⑥ 실과(기술 · 가정) ⑦ 체육 ⑧ 음악 ⑨ 미술 ⑩ 외국어
인성 · 창의분과영역 (4개 분과)	① 인성교육 ② 창의적체험활동 ③ 생활지도(상담,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 등) ④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직분과영역 (2개 분과)	① 교육행정(학교경영, 교직생활, 교육정책개발연구, 평생교육 · 교육복지) ② 교육과정운영
유아 · 특수분과영역 (3개 분과)	① 유아교육 ② 특수교육(청각장애 · 시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장애) ③ 영재 및 학습부진아 교육

※ 출품편수에 따라 분과별 또는 영역별 통합심사 가능함.

3. 출품자 제출서류 등

- 1 출품신청서 1부(양식 1)
- 2 출품서약서 1부(양식 2)
- 3 연구보고서 요약서 1부(양식 3)
- 4 연구보고서 1부(양식 4)
- 5 연구보고서 제출용 hwp 또는 PDF파일(USB 등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
- 6 참가비 납부 안내(비회원일 경우에만 납부)
 - 참가비 : 64,000원
 - 보고서를 기준으로 공동작일 경우 비회원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참가비를 납부해야 함.
 - 납부한 참가비는 출품포기, 표절, 등외로 인한 등급 미부여 등의 어떠한 사유에 대해서도 환불하지 아니함.

4. 시상내용

- 1 입상편수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최종 출품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1 : 2 : 3등급이 1 : 2 : 3의 입상비율을 유지하도록 함.
※ 입상비율은 매년 대회 인정권자의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 1등급은 한국교총 푸른기장증 및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2 · 3등급은 한국교총회장상을 수여함.
- 3 최고상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작품 2편에 대하여 대통령상(1편), 국무총리상(1편)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상금을 지급함.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가 공동출품 또는 공동수상의 경우 대표수상자 1인 또는 단체(팀) 명의로 상장이 발급될 수 있고, 최우수작품 편수는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연구보고서 심사절차



6. 심사기준 및 배점

1. 본심사 기준(100점 만점)

심사기준 및 배점	내용
연구의 현장적용성(50점)	① 연구가 현장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 ② 연구내용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가? ③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연구내용(25점)	① 연구내용을 일선교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② 연구내용의 분석력과 논리는 적절한가? ③ 연구내용이 현장교육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가?
연구방법(15점)	① 연구방법이 연구내용에 적절한가? ② 연구의 도구 및 자료분석이 연구내용에 적합한가? ③ 연구의 체제 및 형식이 창의적인가?
연구주제의 접근성(10점)	연구주제 및 내용들이 한국교총이 설정한 연구주제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

2. 발표심사 기준(10점 만점)

심사기준 및 배점	내용
연구내용의 현장성(3점)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접근방법은 적절한가?
연구내용의 진실성(4점)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으며 연구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3점)	연구결과는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가?

7. 보고서 작성의 주안점

현장교육연구운동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교육운동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① 어느 분과를 연구하든지 연구자의 연구주제는 한국교총이 정한 당해 연도 연구 주제가 기본 배경이 되도록 함.
- ② 연구주제는 연구의 핵심이 부각되도록 간결하게 압축하여야 하며, 연구내용은 현장교육 문제의 해결 및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함.
- ③ 연구범위를 가급적 문제해결 분야로 집약시켜 현장교육연구로서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함.
- ④ 연구보고서의 분량은 70면(A4 용지 양면 컬러 인쇄, 좌철·제본 – 부록포함, 걸표지 코팅 금지) 내외로 하며, 부록은 연구보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분철하는 일이 없도록 함(스프링철 금지).
- ⑤ 연구보고서 본문(속표지 및 내지)에는 출품자의 소속 및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걸표지는 기재).
- ⑥ 현장교육연구는 학술연구와 달리 현장교육 문제의 개선이나 발전에 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논리전개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것이 필요하며, 문제해결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함.
- ⑦ 연구는 기초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주제선정, 연구의 동기와 필요성, 연구의 목적, 문제의 제기 및 가설 설정, 연구자의 여건, 연구의 시기, 자료수집 가능성, 행·재정적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반드시 중간 점검을 통해 연구의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진행함.
- ⑧ 선행연구 내용을 1행 이상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각주를 달아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잡다한 사항의 인용이나 참고문헌의 나열은 연구보고서를 오히려 조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 ⑨ 연구대상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기공하느냐 여부 및 연구의 핵심 주장부분을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의존하느냐 여부에 따라 양적연구 또는 질적연구를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해야 함.
- ⑩ 연구의 내용에 적합한 연구분과를 선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⑪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연구보고서 작성 형태를 탈피하여 현장교육의 실제를 공개·보고하는 식의 연구보고서가 바람직함.

8. 출품 및 추천시 유의사항

- ① 2개 분과 동시 출품은 불허함.
- ② 직위 및 학교급별 상이자 간의 공동작은 출품할 수 없음(공동연구는 4인 이내로 제한함).
- ③ 교감, 수석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직무와 직결된 연구이어야 함(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감은 출품신청서에 해당 사항 기재).
- ④ 공동작은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여야 함.
- ⑤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연구, 시·도 교육청의 정책적 연구결과를 개인연구로 변형하여 제출할 경우 표절 처리함.
- ⑥ 제출서류 미비시 연구보고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입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⑦ 출품자가 잘못 지원한 분과 또는 분과가 모호한 경우, 한국교총이 출품자와 협의하여 분과를 조정할 수 있음.
- ⑧ 초등학교 1, 2학년의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통합교과는 교과분과영역의 관련 교과 중 본인 연구와 연관 있는 쪽으로 제출함.

9.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의사항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320호, 2020. 1. 1. 일부개정) 제21조(불공정행위의 관리 및 보고) 및 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과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시 입상 취소, 징계 등의 제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연구대회 네트워크 홈페이지(www.edunet.net/nedu/main/mainForm.do)에 모든 연구대회의 출품자 명세(성명, 소속, 출품주제)가 공시되고, 해당 입상작이 탑재되어 검색 및 열람이 자유롭게 되었음.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가 언제든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연구대회 출품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함.

1. 불공정 행위의 유형

- ▷ 표절과 모작([\[10\]](#) 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참조), 대리 연구물 제출 행위 또는 그 위탁(수탁)
- ▷ 저작권 침해 등
 - 이미 발표된 내용(본인 연구물도 포함)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한 경우
 - 관련 선행연구나 이전 연구대회 기 제출한 연구물(본인 연구물도 포함)의 절차, 특수 모형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대로 적용한 경우
 -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인용범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판정)
 - 대회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연구대회 출품 자료 취득 및 제공 행위
- ▷ 고의적으로 출품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 출품자나 관련 교원, 직무종사자의 의무위반 행위
- ▷ 그 밖에 연구대회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공정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한 행위

2.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치

- ▷ 연구대회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및 조치됨.
 - 입상 취소
 -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 연구대회 인정권자(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 교육부장관,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 : 시·도 교육감)에게 입상취소자 서면통보,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불공정 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10. 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 ① 각종 선행 연구물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문장을 일부 변형하여 쓴 경우(인용표시에 관계없이)
- ② 선행연구와 다른 연구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목적 및 가설(중점), 결론 또는 제언의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선행연구와 같은 경우(인용표시와 관계없이)
- ③ 연구의 과정에서 선행 연구보고서의 절차 또는 특수한 모형을 그대로 혹은 일부분을 바꾸어 적용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 ④ 각주를 달았으나 선행연구의 각주와 비교해 볼 때 동일자료(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동일한 문장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경우
- ⑤ 이미 발표된 이론 또는 문장, 도표, 삽화, 통계 등을 각주 표시 없이 활용한 경우
- ⑥ 선행연구의 특수한 모형(또는 도표, 삽화, 통계)을 문장으로 바꾸거나 도표로 정리해놓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 ⑦ 연구자(본인) 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하여 사회에 알려지거나(석·박사 학위 논문 등) 입상한 논문을 부분 변용·기술한 경우
- ⑧ 선행연구와 외형적인 구조·구성은 다르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
- ⑨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연구,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연구결과를 개인연구로 변형하여 제출한 경우
- ⑩ 기 입상한 본인의 작품(입상등급에 관계없이)을 현격히 심화·발전시키지 않고 재제출한 경우



〈붙임 1〉

※ 예시

◆ 연구계획서의 체제(양적연구 유형)

제목 :

I. 연구 문제(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구체적 연구 문제와 가설
4. 용어의 정의

II. 이론적 배경과 관련 문헌 개관

1.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의 고찰

III. 연구 방법과 절차

1. 연구 설계
2. 연구의 절차와 실험설계
3. 연구 대상
4. 측정 도구
5. 자료 분석 및 통계적 방법
6.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제한점)
7. 연구의 예상되는 성과
8. 연구일정계획

참고 문헌

부록

〈붙임 1〉

※ 예시

◆ 연구계획서의 체제(질적연구 유형)

제목 :

I. 연구 문제(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제한점(필요한 경우)

II. 이론적 배경과 관련 문헌 개관

1.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의 고찰

III. 연구 방법과 절차

1. 연구방법(질적연구 이유)
2. 연구대상(연구대상과의 관계 제시)
3. 표집(표본추출)
4. 자료수집(인터뷰, 녹음, 메모 등)
5. 자료 분석
6. 연구의 타당성 검증(연구자의 편견 배제)
7. 연구결과(앞서 논의된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관련한 연구의 공헌사항을 제시)

참고 문헌

부록

(양식 1 :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제6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신청서

1. 인적사항 및 출품현황

성명	한글		생년월일	※ 생년월일 숫자6자리 기재
	한자			
팀명	공동연구자만 작성(이름을 나열한 팀명은 제외함, 한글로 기재) 팀명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시에만 상장에 사용될 명칭임.			
소속	근무처	※ 반드시 학교(기관)장 직인상의 학교명 기재	직위	()교과 ※ 교감이 교과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담당교과 기재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근무처() - 핸드폰() - e-mail :
분과명			연구실행 학교·학년·반	
연구주제	※ 연구보고서의 주제명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기재			

2. 교직 및 연구경력

최초임용일	년 월	교직경력	년 월
연구경력	가. 연구학교 근무경력 : 나. 전국규모 각종대회 입상경력 : 다. 대학원 경력 : 라. 기타 연구경력 : ※ 연구(입상)내용 및 기관명 기재		

본인은 제6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을 위해 위와 같이 출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연구자

(인)

3. 학교(기관)장 추천

위 사람은 본교(기관) 교원(교육전문직)으로서 상기 부문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연구 실천하였기에 연구 과정을 확인하고, 출품자로서 적격이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학교(기관)장 (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일반 개인정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관리 및 운영,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 · 이용 목적〉 출품자 DB 등록,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 제공, 기타 연구대회 운영 관련 업무

〈수집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글/한자), 소속(근무처), 직위, 전화번호(소속학교/핸드폰), 이메일

- 선택항목 : 최초 임용일, 연구경력(연구학교 근무경력/전국규모 각종 대회 입상경력/대학원 경력/기타 연구경력)

〈보유 · 이용기간〉 입상자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 입상실적 확인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출품 신청자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아니오

2. 생년월일

〈수집 · 이용 목적〉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관리 및 운영,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를 위한 본인 확인 용도

〈수집 항목〉 생년월일

〈보유 · 이용기간〉 입상자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 입상실적 확인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출품 신청자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아니오

3. 제3자 제공 동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연구대회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제3자(교육부/시 · 도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부	입상자 전원의 연구대회 입상기록 확인	소속(근무처)/직위/성명/생년월일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 및 이용
시 · 도교육청	해당 시 · 도 입상자의 연구대회 입상기록 확인	소속(근무처)/직위/성명/생년월일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아니오

제6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출품서약서

본인은 2021년 제6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 참가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출품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입상작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관련하여 본인은 연구대회네트워크 공개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현장교육발전을 위한 간행물, 정보 · 통신매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2. 본 작품은 기존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대리연구에 의한 작품이 아니며, 본인 또는 타인의 선행연구물(학위취득실적 포함)과 동일 · 유사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다른 연구대회에 입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본 작품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일 현재 타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표절 · 모작 혹은 입상취소 등의 불이익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출품요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했으며, 연구보고서 심사과정 또는 심사 후에도 표절 · 모작 · 대리작 · 본인 작품 재제출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징계 등 제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및 기타 대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소 속 : 학교
직 위(급) :
성 명 : (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귀하

(양식 3 :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연구보고서 요약서

주 제 :

분 과 :

소 속 :

직위 · 성명 :

※ 연구보고서를 요약할 때 유의할 사항

1. 기재 내용

- 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② 연구 대상 및 기간
- ③ 실행 내용
- ④ 검증 방법 및 결과
- ⑤ 결론 및 제언 등을 차례로 기술하되,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은 생략해도 무방함.

2. 반드시 A4 용지 한 면에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할 것

3. 도표는 사용하지 말 것

(양식 4 :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현장교육연구보고서 겉표지

() 분과 (개인, 공동)

현장교육연구보고서

(제 목)

2021.

소속 · 직위 및 성명

※ 유의사항

1. 부장교사도 교사로 표기함.
2.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되 의미의 혼돈이 예상될 경우 ()안에 한자 표기도 가능함.
3. 반드시 출품분과를 명기하여야 함.
4. 속표지에는 소속 및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2021년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

1. 출품방법 및 일정

전국교육자료전에 출품하고자 하는 교원은 먼저 시·도 교육청 및 교육(과학)연구(정보)원,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시·도 단위 교육자료전에 출품하여야 하며, 시·도 단위 교육자료전에서 1등급으로 입상하면 전국단위 교육자료전에 출품이 가능함. (단, 시·도 대회 1등급 입상작은 반드시 전국대회에 출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국교육자료전의 출품범위는 입상제도와 연계하여 매년 대회 인정권자의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 시·도 교육자료전(시·도 교육청 및 교육(과학)연구(정보)원, 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

- ① 교육자료 제작계획서 접수 및 심사 : 2020. 12월
- ② 교육자료 연수 및 중간지도 : 2020. 12 ~ 2021. 4월
- ③ 교육자료설명서 접수 : 2021. 4 ~ 5월
- ④ 교육자료 심사 및 전시 : 2021. 6 ~ 8월

※ 상기 계획과 일정은 시·도별 사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국교육자료전(한국교총 주최)

- ① 교육자료설명서 접수 : 2021. 8월말 마감
- ② 교육자료설명서 예비심사 : 2021. 9월초
- ③ 교육자료설명서 심사 : 2021. 9월말
- ④ 교육자료 반입 : 2021. 10월중
- ⑤ 심사(자료 및 면접심사) : 2021. 10월중
- ⑥ 최고상심사(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 2021. 10월중
- ⑦ 최종 심사 결과 발표 : 2021. 10월중
- ⑧ 교육자료 전시 : 2021. 10월중 ~ 10월말
- ⑨ 시상식 : 2021. 10월말

※ 상기 계획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한국교총 홈페이지에 공지함.

2. 출품분과

- | | | | |
|-------------------|------------------|-------------|------|
| ① 국어(한문 포함) | ② 도덕 | ③ 사회(역사 포함) | ④ 수학 |
| ⑤ 과학 | ⑥ 실과(기술 · 가정) | ⑦ 체육 | ⑧ 음악 |
| ⑨ 미술 | ⑩ 외국어 | ⑪ 특수교육 | |
| ⑫ 유아교육 · 통합교과(초등) | ⑬ 인성교육 · 창의적체험활동 | ⑭ 일반자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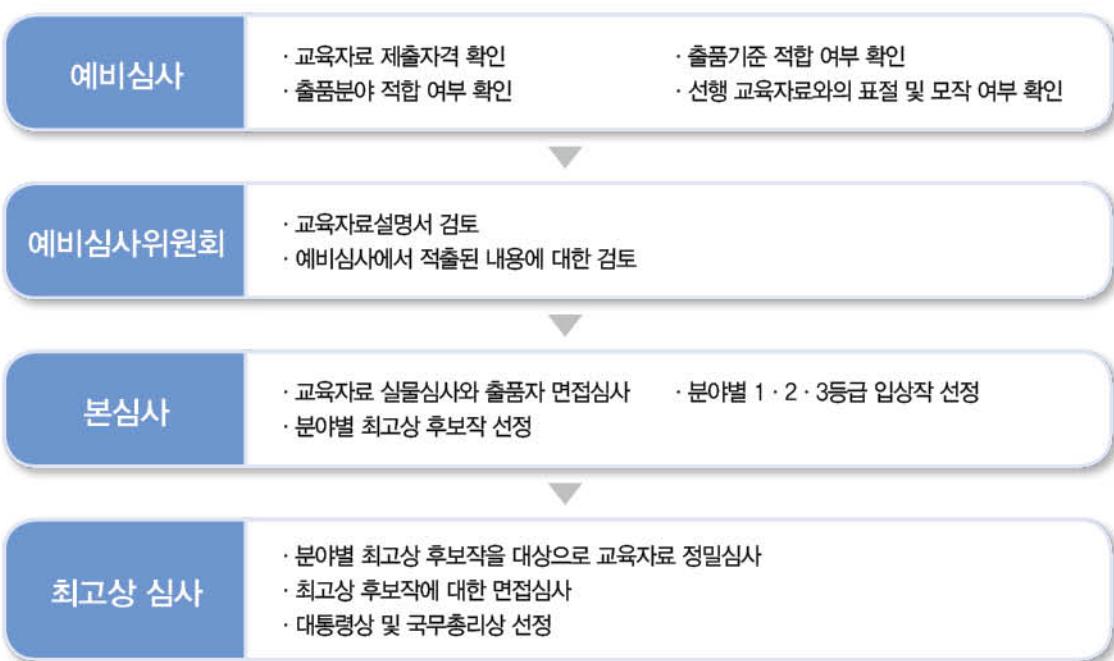
3. 출품자 제출서류 등

- 1** 출품서약서 1부(양식 5)
- 2** 출품신청서 1부(양식 6)
- 3** 출품자료 1점
- 4** 교육자료설명서 8부
- 5** 교육자료요약서 1부(양식 7)
 - A4 1장(단면) 분량을 반드시 준수토록 함.
- 6** 게시용지 1점(양식 8)
- 7** 교육자료 설명서 및 요약서 hwp 또는 PDF 파일(USB 등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
- 8** CD-ROM 1점 (작품 주자료가 컴퓨터 웹자료를 기반으로 한 작품에 한하여 제출)
- 9** 참가비 납부 안내(비회원일 경우에만 납부)
 - 참가비 : 70,000원
 - 교육자료를 기준으로 공동작일 경우 비회원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참가비를 납부해야 함.
 - 납부한 참가비는 출품포기, 표절, 등외로 인한 등급 미부여 등의 어떠한 사유에 대해서도 환불하지 아니함.

4. 시상내용

- 1** 입상편수는 전국교육자료전 최종 출품작에 대하여 1 : 2 : 3등급이 1 : 1 : 1의 입상비율을 유지하도록 함.
※ 입상비율은 매년 대회 인정권자의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 1등급은 한국교총 푸른기장증 및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2 · 3등급은 한국교총회장상을 수여함.
- 3** 최고상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작품 2점에 대하여 대통령상(1점), 국무총리상(1점)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상금을 지급함.
※ 정부포상사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가 공동출품 또는 공동수상의 경우 대표수상자 1인 또는 단체(팀) 명의로 상장이 발급될 수 있고, 최우수작품 편수는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심사절차



6.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기준 및 배점	내 용
자료의 적절성(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가?② 자료의 제작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③ 교수-학습활동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
창의성(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자료가 참신하고 독창적인가?② 본인이 직접 구상하여 제작한 작품인가?
완성도(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자료가 기본 목적과 설계에 따라 제작되었는가?② 자료 제작기술은 정밀한가?③ 자료가 매체의 특성을 적절히 살리고 있는가?④ 자료가 견고하고 사용이 편리한가?⑤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직 정리하였는가?
교육에의 기여도(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타당한가?② 교육효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③ 현장교육개선에 기여도가 높은가?
일반화 가능성(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제작에 소요된 경비는 적절한가?② 교육현장에 보급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있는가?③ 제작자료의 재료구입과 제작방법이 용이한가?

7. 출품 및 추천시 유의사항

- 1** 2개 분야 동시 출품은 불허함.
- 2** 공동연구는 4인 이내로 제한함.
- 3** 학교급별간 공동연구를 허용함.
 - ▷ 유치원교원과 초등교원, 초등교원과 중등교원간의 공동연구를 허용함.
 - ▷ 학교급별 상이자간의 공동작은 반드시 공동자료 활용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교육자료에 대해서는 평가시 반영함.
 - ※ 교육자료설명서에 공동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기토록 함.
- 4** 직위가 다른 교원과의 공동작은 출품할 수 없음.
- 5** 주자료, 보조자료 제한기준을 반드시 준수토록 함.
 - ▷ 자료의 방만화 방지 및 특성화된 교육자료를 유도하며 자료의 일반화를 용이토록 하기 위해 교육자료의 주자료 이외의 보조자료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함.
 - ▷ 자료 수의 기준은 활용매체를 기준으로 함.
 - ▷ 주자료는 복수매체의 활용이 가능하나 보조자료는 단일매체로 제한함.

교육자료전 교수매체 분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자료 · 모형자료 · 표본자료 · 조작자료(인형극, 그림극, 게임자료 등) · TP/슬라이드 자료 · 영상자료(DVD 등) · NIE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자료(CD음악, MP3 등 디지털 사운드 포함) · 파일자료(과도, 사진, 카드, 그림, 스크랩북, 도표, 설명자료 등) · 멀티미디어 자료(CD-ROM 기반) · WBI 자료 · 모바일 자료(휴대폰, PDA, 태블릿PC 기반)
--	---

※ 주자료, 보조자료 제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WBI 자료의 경우 심사 시 인터넷 기반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출품자 컴퓨터 안에서 구현되도록 제작.

- 6** 제출서류 미비시 교육자료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입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7** 출품자가 잘못 지원한 분야 또는 분야가 모호한 경우, 한국교총이 출품자와 협의하여 분야를 조정할 수 있음.
- 8** 저작권 확인
 - ▷ 출품작 내에 타인이 제작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원제작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교육자료설명서에 표기하고 사용권 확보 서류를 첨부함).
 - ▷ 에듀넷, EBS 등에 탑재된 자료(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기재함.

9 교육자료설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 ▷ 전국교육자료전 예비심사는 실물자료 심사 전 「교육자료설명서」 심사를 통하여 선행교육자료와의 표절 및 모작 여부를 확인하므로, 불공정행위 유형 및 표절·모작 판단 기준 예시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교육자료설명서」를 작성하기 바람.
- ▷ 규격은 A4 용지 30쪽 내외로 양면 컬러 인쇄하여 좌절함(스프링철 금지).
- ▷ 겉표지는 미끌거리는 코팅을 하지 말 것
- ▷ 공동작의 경우 그 필요성, 타당성 등을 반드시 명기할 것
- ▷ 교육자료설명서의 표지에는 출품자의 소속 및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본문 안(속표지 및 내지)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 ▷ 작품이 교육자료설명서에 상세히 표현될 수 있도록 기술함.

8.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유의사항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320호, 2020. 1. 1. 일부개정) 제21조(불공정행위의 관리 및 보고) 및 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과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시 입상 취소, 징계 등의 제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연구대회 네트워크 홈페이지(www.edunet.net/nedu/main/mainForm.do)에 모든 연구대회의 출품자 명세(성명, 소속, 출품주제)가 공시되고, 해당 입상작이 탑재되어 검색 및 열람이 자유롭게 되었음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가 언제든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연구대회 출품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함.

1. 불공정 행위의 유형

- ▷ 표절과 모작(9 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참조), 대리 연구물 제출 행위 또는 그 위탁(수탁)
- ▷ 저작권 침해 등
 - 이미 발표된 내용(본인 연구물도 포함)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한 경우
 - 관련 선행연구나 이전 연구대회 기 제출한 연구물(본인 연구물도 포함)의 절차, 특수 모형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대로 적용한 경우
 -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인용범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판정)
 - 대회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교육자료전 출품 자료 취득 및 제공 행위
- ▷ 고의적으로 출품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 출품자나 관련 교원, 직무종사자의 의무위반 행위
- ▷ 그 밖에 대회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공정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한 행위

2.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치

- ▷ 연구대회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및 조치됨.
 - 입상 취소

-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 연구대회 인정권자(전국교육자료전 :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자료전 : 시·도 교육감)에게 입상취소자 서면 통보,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불공정 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9. 표절 및 모작 판단 기준 예시

- ① 선행 교육자료설명서의 자료 설명 내용과 현행 교육자료설명서의 자료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문장을 일부 변형하여 쓴 경우(인용표시에 관계없이)
- ② 기 입상된 본인작품을 상당부분 이상 변화·심화시키지 않고 작품에 대한 설명이 거의 동일한 경우
- ③ 선행 교육자료설명서와 내용은 다르나 동일한 틀을 사용하고, 내용전개·구성 등이 동일한 경우
- ④ 선행 교육자료설명서와 자료의 종류가 동일하고, 자료의 제작방법 및 과정도 유사한 경우
- ⑤ 선행 교육자료설명서와 자료의 종류는 다르나, 내용이 같을 경우
 - ▷ 선행 교육자료설명서의 CD-ROM 자료 등을 동일한 내용의 Web자료로 변형하는 경우 등
- ⑥ 선행 교육자료설명서와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이 동일하거나, 자료의 종류를 1~2가지 부분적으로 첨가한 경우
- ⑦ 선행 교육자료설명서의 특수한 모형(또는 도표, 삽화, 통계)을 문장으로 바꾸거나 도표로 정리해놓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 ⑧ 선행연구와 다른 연구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목적 및 가설(중점), 결론 또는 제언의 상당 부분이 선행 교육자료 설명서와 같을 경우(인용표시와 관계없이)

10. 교육자료 심사 및 전시시 유의 사항

- ① 출품된 교육자료는 각 분야별로 전시되며, 전시위치는 한국교총이 지정함.
- ② 출품자료 규격은 개인별 전시면적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이내로 제작하도록 함.
- ③ 전시장 전압은 220V이므로 작품이 110V이거나, 삼상전압일 경우에는 출품자가 강압기 등을 별도 준비하여야 함.
- ④ 작품과 관련한 모든 기자재는 출품자가 직접 준비해야 함(전선, 연결코드, 컴퓨터, 인터넷 무선랜 등).
 - ※ 노트북 잠금장치도 출품자가 직접 준비하도록 함.
- ⑤ 전시대 전면에 '게시용지'(차트 게시)이외의 자료는 되도록 부착하지 않도록 함.
- ⑥ 전시 기간 중 전시 자료는 항상 일반인이 관람·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 전시하는 컴퓨터에 비밀번호 설정은 금지하며, 전시 컴퓨터 구동 방법은 A4용지에 간단하게 기록하여 별도 부착할 것
- ⑦ 출품된 자료는 전시기간 동안 반드시 전시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에는 입상등급을 취소함.
 - ※ 출품자료는 반입 후에는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상식 종료 후 반출해야 함.
- ⑧ 출품자료 중 분실우려가 있는 고가의 귀중품은 한국교총과 협의하여 반출할 수 있으나, 반출시에는 관람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모조품 또는 사본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 ※ 노트북 반출시에는 반드시 Desktop으로 대체하여야 함
- ⑨ 분실 여지가 높은 자료 등은 전시기간 동안에 사본을 비치하여야 함.
- ⑩ 무선인터넷을 지원할 예정이나 전시장소의 변경이나 무선인터넷 연결의 문제발생을 대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는 자료는 출품자 자신의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사용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⑪ 교육자료설명서 본문(속표지 및 내지)에는 출품자의 소속 및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 출품서약서

본인은 2021년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에 참가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출품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입상작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관련하여 본인은 연구대회네트워크 공개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현장교육발전을 위한 간행물, 정보 · 통신매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2. 출품작품이 특허신청 중이거나 특허신청이 완료된 상태이더라도 이는 작품 의 무단사용이나 계약되지 않은 업자에 의한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본인은 연구대회네트워크 공개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현장교육발전을 위한 간행물, 정보 · 통신매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3. 본 작품은 기존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대리연구에 의한 작품이 아니며, 본인 또는 타인의 선행연구물(학위취득실적 포함)과 동일 · 유사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다른 연구대회에 입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4. 본 작품이 전국교육자료전 입상일 현재 타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표절 · 모작 혹은 입상취소 등의 불이익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출품요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했으며, 교육자료 심사과정 또는 심사 후에도 표절 · 모작 · 대리작 · 본인 작품 재제출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징계 등 제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및 기타 대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소 속 : 학교
직 위(급) :
성 명 : (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귀하

(양식 6 : 전국교육자료전)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 출품신청서

1. 인적사항 및 출품현황

성명	한글		생년월일	※생년월일 숫자6자리 기재	
	한자				
팀명	공동연구자만 작성(이름을 나열한 팀명은 제외함, 한글로만 표기) 팀명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시에만 상장에 사용될 명칭임.				
소속	근무처	※반드시 학교(기관)장 직인상의 학교명 기재	직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근무처() - 핸드폰() - e-mail :	
분과명			적용교과 및 단원(교재)		
연구주제	※ 자료설명서의 주제명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기재				
제작비			제작기간		
			자료크기	가로:	세로:
자료목록	※ 출품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자료목록을 기재 (주자료, 보조자료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기)				

2. 교직 및 연구경력

최초임용일	년 월	교직경력	년 월
연구경력	가. 연구학교 근무경력 : 나. 전국규모 각종대회 입상경력 : 다. 대학원 경력 : 라. 기타 연구경력 : ※ 연구(입상)내용 및 기관명 기재		

본인은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 출품을 위해 위와 같이 출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연구자 (인)

3. 학교(기관)장 추천

위 사람은 본교(기관) 교원(교육전문직원)으로서 상기 부문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연구 실천하였기에 연구 과정을 확인하고 출품자로서 적격이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학교(기관)장 (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일반 개인정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교육자료전 관리 및 운영,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 목적〉 출품자 DB 등록,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 제공, 기타 연구대회 운영관련 업무

〈수집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글/한자), 소속(근무처), 직위, 전화번호(소속학교/핸드폰), 이메일
- 선택항목 : 최초 임용일, 연구경력(연구학교 근무경력/전국규모 각종대회 입상경력/대학원 경력/기타 연구경력)

〈보유·이용기간〉 입상자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 입상실적 확인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출품 신청자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전국교육자료전 출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아니오

2. 생년월일

〈수집·이용 목적〉 전국교육자료전 관리 및 운영,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를 위한 본인 확인 용도

〈수집 항목〉 생년월일

〈보유·이용기간〉 입상자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 입상실적 확인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출품 신청자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전국교육자료전 출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아니오

3. 제3자 제공 동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연구대회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제3자(교육부/시·도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부	입상자 전원의 연구대회 입상기록 확인	소속(근무처)/직위/성명/생년월일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 및 이용
시·도교육청	해당 시·도 입상자의 연구대회 입상기록 확인	소속(근무처)/직위/성명/생년월일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아니오

(양식 7 : 전국교육자료전)

교육자료 요약서		
[제 목]		
소속 · 직위, 성명		
교육자료 전면 사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작목적 2. 적용대상 및 교과 3. 자료의 구성내용 		
구분	주자료	보조자료
자료명		
수량		
4. 자료의 사용방법 및 교육적 효과		
자료의 사용방법	교육적 효과	

(양식 8 : 전국교육자료전)

게시용지 작성요령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		출품분야 고유번호
<p>자료명 :</p> <p>소속/직위/성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작동기 (또는 목적) 2. 대상학년 및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상학년 : 예) 초등학교 5, 6학년 나. 적용교과 : 예) 과학과 다. 활용단원 : 예) 6-2-2-계절의 변화 3. 자료의 구성내용 		
구분	주자료	보조자료
자료명	고도 측정 조작자료	워크북
수량	2개	1개
필요한 경우 사용 장면의 그림 또는 사진을 넣어도 무방함		
4. 자료의 사용방법 및 교육적 효과		
자료의 사용방법	교육적 효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2021년 제58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1. 출품방법 및 일정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본 대회가 시·도 대회를 거치지 않는 전국규모단위의 대회이므로 관심 있는 초등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 포함)의 경우 한국교총의 대회 일정에 맞게 최종 연구보고서를 출품하면 됨.

- | | |
|------------------------|----------------------------|
| ① 연구보고서 접수 : 2021. 8월중 | ② 예비심사 : 2021. 8월말 |
| ③ 본심사 : 2021. 9월중 | ④ 심사결과 발표 : 2021. 10월초(예정) |

※ 상기 계획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한국교총 홈페이지에 공지함.

2. 출품부문

연구 부문	연구 내용
1.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창의적인 학교경영 또는 학급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천사례를 연구 – 학교경영(예: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계획과 실천, 명품교육을 위한 우리학교 특색사업, 전교생 생활지도를 통한 착한 인재육성, 학교내 교원연수를 통한 수업개선실천 사례, 보직과 교과전담 교사 배치를 통한 우리학교 교육력 제고 사례 등) – 학급경영(예: 마음의 문을 여는 교실대화방, 함께 어우러지는 월별 학급경영 프로그램 제안 등) –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교실(예: 방과후학교 운영프로그램, 온종일 돌봄교실, 원어민 영어, 놀이한자, 과학실험, 컴퓨터자격증, 로봇과학 등)
2.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각 교과의 창의적인 교수-학습 지도안의 개발 연구(예: 교과별 일반화가 가능한 창의적인 수업 안 등 포함)
3. 평가자료 개발연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과정평가 중심의 평가자료 개발연구(예: 현장에서 수시로 개발 적용한 교과별 과정평가 자료, 관찰평가, 서술형평가 등) 또는 교과별 일반화 가능한 수준별 교수·학습 관련 학습지 자료
4.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연구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발한 활동자료 – 인성교육(예: 바르고 정직한 인재육성, 공동의 목표와 나의 역할 찾기, 읊음과 그음을 알아보는 토론수업 프로그램 및 인성교육중심수업 교수-학습과정안 개발·연구) – 창의적체험활동(예: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자료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체험활동」을 하기 위해 개발한 활동자료)

※ 출품편수에 따라 부문별 통합심사 가능함.

3. 심사 절차

예비심사

- 제출자격 확인
- 선행연구와의 표절 및 모작 여부 확인

· 해당부문 적합여부 확인

예비심사위원회

- 표절 및 등외 판정

본심사

- 연구보고서 심사 및 등급 결정

4.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기준 및 배점	내 용	배점	총점
학교 · 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① 학교 · 학급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주제 · 계획 수립 ② 학교 · 학급경영 방법의 적절성 ③ 학교 · 학급경영을 위한 창의적 실천(참신성) ④ 현장 실천 활용도(현장 적용성)	30 20 30 20	100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① 교육과정의 심화도 ② 교수 · 학습에의 활용 등 실제적 기여 ③ 창의적 개발성(참신성) ④ 자료개발 방법의 적절성	30 30 20 20	100
평가자료 개발연구	① 교수 · 학습에의 활용도(현장 적용성) ② 평가자료 내용의 심화도 및 창의성 ③ 평가기준의 타당성(수준별, 수행평가 등) ④ 자기주도 학습능력에의 기여도	30 30 20 20	100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연구	① 주제 선정의 적절성 ② 활동시간의 현장활용도(실제적 기여도) ③ 연구내용의 참신성 ④ 개발 자료의 적용성(적용 학년의 범위)	30 30 20 20	100

5.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의사항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320호, 2020. 1. 1. 일부개정) 제21조(불공정행위의 관리 및 보고) 및 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과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시 입상 취소, 징계 등의 제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연구대회 네트워크 홈페이지(www.edunet.net/nedu/main/mainForm.do)에 모든 연구대회의 출품자 명세(성명, 소속, 출품주제)가 공시되고, 해당 입상작이 탑재되어 검색 및 열람이 자유롭게 됨.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가 언제든 가능하므로 연구대회 출품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함.

1. 불공정 행위의 유형

- ▷ 표절과 모작[⑥ 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예시) 참조], 대리 연구물 제출행위 또는 그 위탁
- ▷ 저작권 침해 등
 - 이미 발표된 내용(본인 연구물도 포함)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한 경우
 - 관련 선행연구나 이전 연구대회 기 제출한 연구물(본인 연구물도 포함)의 절차, 특수 모형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대로 적용한 경우
 -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인용범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판정)
 - 대회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연구대회 출품 자료 취득 및 제공 행위
- ▷ 고의적으로 출품 구비서류 등을 하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 출품자나 관련 교원의 의무위반 행위
- ▷ 그 밖에 연구대회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공정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한 행위

2.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치

- ▷ 연구대회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및 조치됨.
 - 입상 취소
 -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 연구대회 인정권자(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 교육부장관)에게 입상취소자 서면 통보,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증에 따라 불공정 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6. 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예시)

- ① 각종 선행 연구물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문장을 일부 변형하여 쓴 경우(인용표시에 관계없이)
- ② 선행연구와 다른 연구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목적 및 가설(중점), 결론 또는 제언의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선행연구와 같은 경우(인용표시와 관계없이)
- ③ 연구의 과정에서 선행 연구보고서의 절차 또는 특수한 모형을 그대로 혹은 일부분을 바꾸어 적용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 4 각주를 달았으나 선행연구의 각주와 비교해 볼 때 동일자료(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동일한 문장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경우
- 5 이미 발표된 이론 또는 문장, 도표, 삽화, 통계 등을 각주 표시 없이 활용한 경우
- 6 선행연구의 특수한 모형(또는 도표, 삽화, 통계)을 문장으로 바꾸거나 도표로 정리해 놓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 7 선행연구와 외형적인 구조·구성은 다르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

7. 표절 및 등외작 처리

- 1 기 입상한 본인의 작품(입상등급에 관계없이)을 현격히 심화·변형·발전시키지 않고 재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등외 및 표절 처리함.
- 2 표절 및 등외 판정을 받은 작품은 등급을 부여치 않음.
- 3 등급 부여 후에도 표절로 발견된 작품은 등급을 취소하고, 이 사항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통보함.
- 4 표절로 판정된 연구자는 표절판정일(등급 부여자의 경우 입상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의 참여를 제한함.
- 5 시범학교 운영연구, 시·도 교육청의 정책적 연구결과를 개인연구로 변형하여 제출한 경우

8. 시상 내용

- 1 입상 편수 : 출품작의 20%
- 2 시상내역

등급	구분	시상 내용
1등급	본회표창	푸른기장증
	정부표창	교육부장관상
2등급	본회표창	한국교총 회장상
3등급	본회표창	한국교총 회장상

* 1 : 2 : 3등급이 1 : 2 : 3의 입상비율을 유지 (*대회 인정권자의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9. 주요 행정사항

1. 비회원 참가비 납부 안내

- ▷ 참가비 금액 : 64,000원/연구보고서 1편당
- ▷ 참가비 납부방법 : 본회 계좌(농협 368-17-000795, 예금주 : 한국교총)로 입금함.
- ▷ 참가비 납부 관련 유의사항 : 납부한 참가비는 출품포기, 표절, 등외로 인한 등급 미부여 등의 어떠한 사유에 대해서도 환불하지 아니함.

2. 연구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학교 · 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 창의적인 학교경영 또는 학급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참신한 주제의 아이디어를 한 가지 이상 선정하여 주제별로 다양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 적용한 학교경영 또는 학급경영 연구 결과를 작성, 제출할 것.
 - 연구물은 반드시 '한글파일'의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용지로 출력된 원본 1부를 양면 컬러 인쇄(단면 인쇄가 아님) 좌절 · 제본하여 제출함(스프링철 금지). 또한 출력물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USB 등 저장장치에 담아 함께 제출할 것.
 - 연구물의 분량은 반드시 60쪽 이내일 것(단, 주제별 지도, 운영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 실적물이 있으면 원본 뒤에 합본하여 부록으로 첨부하되 30쪽 이내일 것).
 - 상기 연구 부문의 주제가 '학교경영'에 관한 것이면 관리직(교장, 교감)의 연구 · 출품이 가능함.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교실'에 관한 것은 관리직 및 교사 모두 연구 · 출품이 가능함.
- ※ '학교경영' 주제 중에서 교사의 수업 · 연구 지원 및 장학컨설팅 관련한 연구 등은 수석교사의 출품이 가능함.

▷ 교수 · 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부문

- 한 학년, 한 교과를 선택하여 교수 · 학습 지도안(예: 5학년 1학기 수학과)을 창의성 있게 작성할 것.
- 수업연구안(세안)을 5차시분 이상이 되도록 작성할 것.
- 연구물은 반드시 '한글파일'의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용지로 출력된 원본 1부를 양면 컬러 인쇄(단면 인쇄가 아님) 좌절 · 제본하여 제출함(스프링철 금지). 또한 출력물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USB 등 저장장치에 담아 함께 제출할 것
- 연구물의 분량은 반드시 60쪽 이내일 것(별도의 부록은 불허함)

▷ 평가자료 개발연구 부문

- 한 학년, 한 교과를 선택하여 평가자료(학습지, 수행평가 등)를 개발 · 작성할 것
- 주당 수업 시간수를 고려하여 작성 분량은 12차시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매 차시당 다양한 평가자료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음.
예: 기본 · 보충 · 심화학습지 등 수준별 학습지 및 창의력 학습지
예: '수행평가 내용 및 기준안(평가척도)' 1매, '수행평가(수행평가 문제)' 1매를 기본형태로 하는 수행평가자료
예: 그 외의 연구자가 개발한 다양한 방법의 평가자료
- 연구물은 반드시 '한글파일'의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용지로 출력된 원본 1부를 양면 컬러 인쇄(단면 인쇄가 아님) 좌절 · 제본하여 제출함(스프링철 금지). 또한 출력물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USB 등 저장장치에 담아 함께 제출할 것
- 연구물의 분량은 반드시 60쪽 이내일 것(별도의 부록은 불허함)

▷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자료 개발연구 부문

- 「인성교육」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지도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되, 이론보다는 실천 중심 자료로 작성할 것
- 현장 활용도가 높은 수업자료를 개발할 것
- 자료 작성시 학년 구분은 각 학년별(1~6학년) 또는 저(1, 2학년) · 중(3, 4학년) · 고(5, 6학년)학년 등으로 구분 · 작성할 것

- 연구물은 반드시 '한글파일'의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용지로 출력된 원본 1부를 양면 컬러 인쇄(단면 인쇄가 아님) 좌절·제본하여 제출함(스프링철 금지). 또한 출력물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USB 등 저장장치에 담아 함께 제출할 것
- 연구물의 분량은 반드시 60쪽 이내일 것(별도의 부록은 불허함)

※ 각 출품부문의 연구대상 기간은 2020학년도 1학기, 2학기 또는 1~2학기 및 2021학년도 1학기를 선택할 수 있음

3. 제출 구비서류

- ▷ 비회원 '참가비 납부 영수증'(교총회원이 아닌 경우)
- ▷ '본인연구확인 및 출품신청서' 1부 - <붙임>
- ▷ 제본된 '연구보고서' 1부
- ▷ 연구보고서 hwp 또는 PDF 파일 1부(USB 등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

10. 기타

- 1** 1인 1개 부문만 출품 가능함.
- 2**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직무와 관련된 연구이어야 함.
 - ▷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부문은 "학교경영"에 관한 연구는 교장, 교감이 출품 가능하며, "학교경영" 중에 서 교사의 수업·연구 지원 및 장학컨설팅 관련한 연구 등은 수석교사의 출품이 가능함. 또한, "학급경영"에 관한 연구는 학급을 운영하는 담임교사만이 출품할 수 있음.
 - ▷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부문 외의 3개 부문은 교사, 교감, 수석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모두 출품할 수 있음.
 - ▷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가 출품할 경우, '본인연구확인 및 출품신청서'에 소속 광역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연구원, 교육원 등의 기관장 확인 및 직인을 받아 출품할 수 있음.
 - ▷ 연구대상 기간은 2020학년도 1학기, 2학기 또는 1~2학기 및 2021학년도 1학기를 선택할 수 있음.
- 3** 연구보고서 작성은 '한글2010' 이상 버전을 권장하고 본문의 글자 크기는 10~11 포인트로 함.
- 4** 연구보고서 본문(속표지 및 내지)에는 소속 및 직위,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겉표지에는 기재).
- 5** 연구물의 속표지, 목차, 대제목이 들어간 간지는 규정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 6** 연구대회 출품 중 소속 및 직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7**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계획은 한국교육신문(www.hangyo.com),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공고할 예정임.
- 8** 제출된 연구보고서는 반환치 않음.
- 9** 제출서류 미비시 연구보고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입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음.

제58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출품신청서

1. 인적사항 및 출품현황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생년월일 숫자6자리 기재
	한 자			
소 속	근무처	※반드시 학교(기관)장 직인상의 학교명 기재	직 위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근무처() - 핸드폰() - e-mail :
연구부문			연구실행 학교 · 학년 · 반	
연구주제	※ 연구보고서의 주제명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기재			

2. 서약

- 가. 연구대회 심사 결과가 표절·모작·대리작·본인연구물 재제출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후 3개 학년도
기간 동안 모든 연구대회 참여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이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나. 본인의 연구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일반화 사업의 일환으로 간행물 및 정보·통신 매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 다. 기타 대회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연구자 (인)

3. 본인 연구 확인

위 사람은 본교(기관) 재직 교원(교육전문직원)이며 0학년 0반 담임(00과 교과 전담) 교사(교장, 교감, 수석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로서, 상기 부문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연구 실천하였기에 연구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고 제58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출품작품으로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학교(기관)장 (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일반 개인정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관리 및 운영,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 · 이용 목적〉 출품자 DB 등록,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 제공, 기타 연구대회 운영 관련 업무

〈수집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글/한자), 소속(근무처), 직위, 전화번호(소속학교/핸드폰), 이메일

〈보유 · 이용기간〉 입상자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 입상실적 확인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출품 신청자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출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아니오

2. 생년월일

〈수집 · 이용 목적〉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관리 및 운영, 입상기록 확인 서비스를 위한 본인 확인 용도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보유 · 이용기간〉 입상자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의 입상실적 확인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출품 신청자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출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아니오

3. 제3자 제공 동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연구대회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제3자(교육부/시 · 도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부	입상자 전원의 연구대회 입상기록 확인	소속(근무처)/직위/성명/생년월일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 및 이용
시 · 도교육청	해당 시 · 도 입상자의 연구대회 입상기록 확인	소속(근무처)/직위/성명/생년월일	관련 법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년간 보유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아니오

“변화하는 사회 · 선도하는 현장교육 ·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

김 희 규 (신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 시작하며

식물은 아무리 씨가 좋아도 토질과 기후가 맞아야 제대로 자란다. 학생이 아무리 우수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 재능을 길러주는 창의적인 학교와 교원이 없다면 창의적인 인재 육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학교는 한 나라 교육의 중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관한 생각의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다. 앤빈 토플러는 사회집단의 변화속도에 대해 기업이 100마일이라면, 가족은 60마일, 정부는 25마일, 학교는 고작 10마일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10마일로 변화하는 학교가 어찌 100마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이나 60마일로 변화하는 가족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반문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교육에서 지배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답주의 문화’는 머릿속에 저장하는 최저 품질의 지식을 요구하고, 이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학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학교경영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길러 혁신적인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학생의 개별적 창의력이 계속해서 더해질 경우, 강력한 창의력이 발휘되는 집단지성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장교육 · 꿈을 살리는 미래의 학교는 모두의 여망이기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본질을 실현하여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길러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숙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1952년부터 2년 주기로 학교 교육에 대한 현실 과제와 미래지향적 지표를 제시하는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의 설정 배경에는 매년 전국단위 연구대회(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 자료전, 초등교육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교원들에게 연구의 목표와 방향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여 지침서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주제의 개념, 연구의 방향성, 연구과제 및 내용, 관련 이론적 배경 등을 담아내어 교육의 미래 지향성과 현장성을 안내하는 길잡이로 자리매김을 해 오고 있다. 기존 연구 대주제의 경향성은 교사주도의 학교내 수업혁신 및 인성교육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2021년과 2022년 대주제는 “변화하는 사회 · 선도하는 현장교육 ·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으로서 미래사회에 학생 개개인의 잠재역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선도적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많은 공모를 통해 엄선된 2021~2022년 대주제는 ‘변화’ ‘선도’ ‘꿈’을 키워드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역설하고 있다.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식 · 정보 · 기술의 고도화, 인간 사고능력의 전문화로 인해 요구되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학교교육이 선도적으로 미래지향성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의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지식 정보화 사회로 급진전되면서 학교교육은 시키고 받는 타율적인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길러주는 자율적인 학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중심의 학습활동이라는 본질적인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Hoy & Miskel, 2001).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학교조직의 제도적 개선과 구성원들의 역할변화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주요 과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업에 기인한 대주제에 대한 의미와 지향점을 논하기 앞서 그 동안 추진해온 최근 연구대회 대주제와 현장교육연구대회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자 한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연구대회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통해 현장 교육의 방향성과 변화지향성의 추이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연구 주제의 추이 분석을 통해 산출된 시사점은 차기 연구주제의 예측 및 연구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연구역량 확보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울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논의는 수 없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현 상황은 인공지능(AI) · 사물인터넷(IoT) ·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더구나 미래사회를 선도할 학생의 역할은 학교교육의 혁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미래의 용어는 변화를 향시 수반한다. 연구의 대주제가 지향하는 변화는 ‘단절적’ 변화가 아니라 ‘연속적’ 변화를 의미하면서, 확장성에 기인한 가치중립적인 변화(change)를 통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다. 미래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은 무엇일까? 이를 위한 학교현장 교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불확실성 시대’로 대별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학교교육이 연속적인 변화를 담아내야 할 숙제의 짐을 지고 있다.

작금의 학교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학생 개개인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원들의 연구역량과 실천가로서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하는 사회 · 선도하는 현장교육 ·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이라는 대주제가 주는 의미와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의 의의(최근 10년간)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의 선정 배경은 전국단위 연구대회(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초등교육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교원의 연구수행 방향의 정보 제공과 동시에 현장교육연구의 변화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회 현장교육연구운동의 대주제는 ‘교육과정의 개조’를 설정하여 해방 직후 교육과정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2~3회 대회의 대주제는 소프트웨어 기반 형식성에도 비중을 두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로 설정하였다. 4회 대회 이후에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듯 ‘도의 사회’, ‘자립경제’, ‘교육의 민주화’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1970~1972년(14~16회) 대회의 주제는 교수방법과 자료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로 선정되었다. 197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인성교육과 미래사회의 대응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인간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 ‘미래에 대응하는 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민주발전을 촉진하는 교육’, ‘교육의 다양성’, ‘교육의 수월성’ 등이 대주제로 다루어졌다. 2000년대는 정보화 시대, 지식기반 사회등 사회변화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2010년부터 최근까지는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배움과 가르침, 연구하는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져 왔다.

대주제의 연구 트렌드는 시대적 맥락과 당시의 시의성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초기단계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의 안착에 따른 이슈, 교육의 민주화, 인간성 확립, 창의성 교육, 인성교육 영역별 포괄성과 특징적 요소를 반영하는 배타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주제의 변화 경향성은 구체성이고 형식성에서 추상성과 복잡성으로 교육의 추이 관점이 다소 상이함을 엿볼 수 있다. 단, 이론과 실제의 고리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가기반 실천가의 선생님, 즉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역할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정기제가 교총에서 개최하는 각종 연구대회가 아닐까?

1. 현장교육연구대회

현장교육연구대회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현장교육연구대회는 크게 4개 분과에 약 20여개의 소분과로 운영되어 왔다.

교과·인성·창의·교직·유아·특수분과 등 4개의 큰 영역의 분과는 그들을 유지하고 있으나 소분과는 다소 변화가 있었다. 분과별로 살펴보면, 교과분과는 소분과에서도 큰 변화가 없으며, '통합교과(초등)' 소분과는 2012년까지 운영되고 조정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연구 내용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즉,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인 창의적인 사고력과 창의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의·인성 분과에서는 2013년부터 방과후학교가 보다 활발하게 현장에서 운영되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소분과가 2013년 대회 때 신설되었고, 2016년 인성교육 진흥법의 시행과 더불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성 교육 소분과가 신설되었다. 이처럼 현장연구대회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금융한, 2019).

2. 교육자료전과 초등교육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은 교육자료 제작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유발하며,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을 촉진시키기 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970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당시, 교육자료전의 응모분야는 시청각 교육자료, 과학 교육자료, 일반 교구자료의 3개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38회 대회에 이르러, 14개 분야로 세분화 되었고, 전국적으로 한 해에 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발전하였다. 교육자료전은 최근 10년간 분야의 조정이나 변화는 없었지만 분야별 출품편수와 입상 편수는 다소 변화가 있어 왔다. 반면 현장의 교수·학습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자료의 형태와 매체 등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의 목적은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학급 현장의 경영관리 기술을 향상 발전시키고, 학습지도 및 평가 자료의 연구, 초등교육 관련 지도자료 개발을 통하여 현장교육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연구 분야는 4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창의적인 학교경영 또는 학급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천·적용사례를 연구하는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각 교과의 창의적인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 연구하는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부문',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과정평가 중심의 평가자료를 개발·연구하는 '평가 자료 개발연구 부문',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발한 활동자료를 연구하는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개발연구 부문'이 있다(금융한, 2019).

III.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

1.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2006년 OECD 산하기구인 교육연구혁신센터(Center of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 예측한 미래 학교 교육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즉, 미래학교의 가능한 유형을 '현 체제의 유지' '학교 재구조화' '학교 약화' '학교 붕괴'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특징들을 '관료제 유지'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시장화 모형' '학습자 네트워크' '학교제도 붕괴'라는 여섯 가지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표 1〉 미래 학교교육의 시나리오

미래학교 유형	특 징
현 체제 유지(Status quo)	•시나리오 1: 관료제적 체제유지
학교 재구조화(Reschooling)	•시나리오 2: 핵심적인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시나리오 3: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학교의 약화(De-schooling)	•시나리오 4: 시장모델의 확대
	•시나리오 5: 학습자의 네트워크
학교제도 붕괴(System meltdown)	•시나리오 6: 학교제도 붕괴

출처: CERI(2006). The Starter pack: Futures thinking in action. OECD.

미래학교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네트이즌의 확산으로 현 체제의 유지를 벗어나 다중학습 네트워크로 흡수 된다는 것이다. 일부 중요한 학습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홈 스쿨링'이 일반화되고 교육은 학교를 떠나 '개인화' 가 이루어진다. 학교는 다른 기관과 별 차이를 갖지 않게 되며 교사와 제자 구분도 불분명해지는 '크로스 보더'의 미래로 변할 것이다. 또한 학교의 기능은 지식 전수기관이라는 고유 역할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지키는 사회센터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보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의식을 키우고 서로를 돋도록 사회 통합의 중심역할을 하는 쪽으로 학교가 변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학습조직으로 재탄생하는 학교에서는 실험과 다양성 그리고 혁신의 문화 속에서 학교가 강력한 학습조직으로 재창조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지식경영이 전면에 대두되면서 초·중등학교는 고등교육조직과 연계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새로운 교육학과 학습과학이 대두되면서 교육의 지평이 쌍방향 평행학습으로 확대된다. 교사는 물론 각종 당사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학습하는 조직으로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김희규, 2007).

이처럼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학교교육은 첫째, 교수 목표 및 내용에 혁신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학교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주어진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무한대의 지식 정보의 저장고인 인터넷이 활용되고, 지식의 폭발적인 팽창과 지식의 수명 주기가 짧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둘째, 학교교육은 학생들 각자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격변상황에서도 원하는 대안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교육이 미래교육이다. 지식기반사회의 교수학습의 핵심은 기존의 발상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무엇보다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창조적인 지식인의 특징을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개인적 성취로 부터 공동체적 성취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우리의 학교교육은 획일성과 통제에 기반한 교육체제 운영으로 경직된 사고 풍토가 지배적이었다. 다양한 체제들의 특징적인 발전을 통해 공동선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에서의 학습은 사실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차원보다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역할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 입학과 동시에 학습 결과에 따른 서열화와 획일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학습(배우고 익히는 것)은 단지 지식의 축적을 위한 의미보다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론적 지식(theoretical knowledge)과 실용적 지식(pragmatic knowledge)의 조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래의 교육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기업 등이 공유하려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교에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일이며 가능한 일도 아니다. “교육은 서로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며 공동체 전체가 필요하다(Education is a shared responsibility and takes a whole community.)”란 인식이 일반화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정의가 전통적인 학교 개념을 넘어 교육생태계(Ecology of Education) 전체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이찬승 외, 2015).

2. 미래지향적 학습공동체

최근까지 교육 또는 학교를 배경으로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다수의 변화과정 모델이 개발되어 왔었다. 혁신이 변화 촉진자로부터 변화 수용자로 전달, 즉 혁신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에 따라 변화의 의사소통모델을 제시하였다. 동 모델은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저항이 내포된 환경 속에서 혁신이 변화 촉진자로부터 변화 수용자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단위학교 변화의 과정에 적용하는 경우 변화 촉진자는 주로 학교장의 역할에, 변화의 의도된 수용자는 교사의 역할에 비유될 수 있다. 이처럼 변화 모형에 기인한 전통적 학교와 학습공동체는 〈표 2〉와 같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전통적 학교와 학습공동체의 비교

구분	전통적 학교	학습공동체
사명	1. 사명 진술이 추상적이다. 2. 사명 진술이 ‘우리는 모든 학생이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와 같이 간단하다.	1. 사명 진술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2. 사명 진술은 ‘우리가 학생들이 배운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준다. 3. 사명 진술은 어떻게 학교가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반응할 것인지 명확히 밝힌다.
비전	1. 비전은 의견 조율의 결과이다. 2. 비전이 종종 무시된다. 3. 비전이 종종 소수에 의해 결정된다.	1. 비전은 연구에 기반한다. 2. 비전은 개선을 위한 청사진으로 사용된다. 3. 비전은 협동을 통해 널리 공유된다.

가치	1. 가치가 무작위이다. 2. 가치 진술의 수가 과하다. 3. 가치가 신념처럼 표현된다. 4. 가치 진술이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다.	1. 가치는 비전과 연계된다. 2. 가치 진술의 수가 적다. 3. 가치 진술은 개선을 위한 청사진으로 사용된다. 4. 가치는 행동과 협신으로 표현된다.
목표	1. 목표 진술이 무작위이다 2. 목표의 수가 과하다. 3. 목표가 결과보다 수단에 초점을 둔다. 4. 목표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5. 목표를 지켜보지 않는다.	1. 목표 진술은 비전과 연계된다. 2. 목표의 수가 적다. 3. 목표는 바람직한 결과에 초점을 둔다. 4. 목표는 측정 가능한 행동 기준으로 해석된다. 5. 목표는 지속적으로 감시된다. 6. 목표는 단기적 성공과 장기적 열정을 위해 설정된다.
교육 과정	1. 개별 교사들이 독립적으로 무엇을 가르칠지 결정한다. 2. 계획한 교육과정을 다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1.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협동적으로 결정한다. 2. 학습 내용을 줄이는 것의 의미는 중요한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이다. 3. 평가 방법은 협동을 통해 개발된다. 4. 학습 부진아들을 위한 계획은 협동적으로 개발된다.
리더십	1. 학교 행정가들은 리더이고 교사들은 팔로워(실행가)이다.	1. 학교 행정가들은 리더 중의 리더이다. 교사들은 변형된 리더이다.
학교 개선 계획	1. 학교의 개선 계획이 넓고 다양한 범위에 초점을 둔다. 2. 계획을 제출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종종 무시된다.	1. 학교 개선 계획은 학생들의 배움에 영향을 주는 소수의 중요한 목표에 초점을 둔다. 2. 학교 개선 계획은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학교 개선의 원동력이 된다.

출처: 이경호(2011). 전문가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장의 역할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19(3), 195–221.

한편, 학습공동체는 미래지향적인 학교공동체의 모습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살아 움직이고 생동하는 학교의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이것은 교사가 중심이 되는 학교단위 또는 전문집단의 학습공동체를 의미한다. 하지만 전문적 학습 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합의된 바는 없는 실정이다(Hord, 2004).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속성은 '가치와 규범의 공유', '협력', '지속적 학습'을 근간으로 지원적 공유 리더십', '공동 탐구와 적용', '공유된 가치와 비전', '지원적 환경', '개인 실천의 공유', '교사와 학생의 학습 중시'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학습자의 바람직한 선택과 행동을 도와주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협동 학습에 기여하는 경우에 그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지닌 학습공동체가 학교조직에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될 때, 교사들에게는 고립감 감소, 직업만족감 및 사기 향상, 학교개선을 위한 노력 등의 효과가 나타난 반면, 학생의 경우, 결석율 감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격차 감소 등 긍정적인 장점이 제시되었다.

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의 팀 학습 활동을 통한 교사의 성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학생의 학습에 연결하는 조직이다. 학습공동체에 있는 교사들은 함께 학습하고 일하는 문화를 만들고, 각자의 강점을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며, 자신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숨기려 해선 안 된다. 학습공동체에서 교사들은 협력적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지원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된다. 교원의 능력개발도 서로 배울 수 있는 공유적 탐구가 중요하며 모든 교사의 지속적 성장의 기회도 팀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이석열, 2015).

또한 학습공동체를 학습조직이론의 기저에서 논의해 볼 때, 학습조직의 5가지 원리에 기반한 학교에서의 구성요건을 요약·정리하면 〈표3〉과 같다. 학습조직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정신모델), 개인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며(개인적 숙련), 조직의 시스템에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시스템 사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미래의 이미지를 설정하여 공유하고(공유 비전), 조직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뛰어넘어 협력과 능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팀 학습)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학습조직의 원리와 기본 요건

원리	학교에서의 구성요건
개인 숙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구성원들에게 자기연수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 학교 구성원의 학습 실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를 도입한다. · 교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강화한다. · 학교조직 내 학습분위기를 조성한다. · 학교 구성원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정신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고정관념을 탈피한다. ·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의식을 고취시킨다. · 조직을 살아서 성장하는 유기체로 바라본다.
공유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전체적인 비전, 목적과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 교육조직이 유연한 수평조직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 관심, 열망을 갖게 한다.
팀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개선을 위한 집단적 협동학습을 전개한다. · 학습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학교 조직내에서 학습 센터를 설립한다. · 다양한 형태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교육행정가는 코치, 지도자 그리고 학습의 촉진자가 되도록 한다.
시스템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년 및 부서별 부문주의를 극복한다. · 객관적 정보, 주관적 통찰, 상징, 육감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다. · 조직과 조직의 시스템, 조직의 프로세스와 조직의 연관관계를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으로 인식한다.

출처: Senge(1990b). The fifth discipline fieldbook의 내용을 수정·보완함.

특히 학습조직의 유형으로, 개인학습은 조직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으로서 조직의 학습이 완성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집단 및 팀학습은 집단 또는 팀 등 조직의 하위 단위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모든 학습을 말한다. 집단학습은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가장 빈번히 이루어진다. 조직학습은 우선 학습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학습은 과정(process)개념이며 학습조직은 결과(outcome)개념이다(Senge, 1990b).

- ① Σ 개인학습 ≠ 집단학습, Σ 집단학습 ≠ 조직학습(단순한 합이 아님)
- ② 학습: 문제해결력 증진(Learning > Training)

따라서 개인학습, 집단/팀학습, 조직학습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개인학습은 집단학습을 일어나게 하고, 집단학습은 조직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가 되며, 개인학습이 직접 조직학습에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조직학습이 개인학습이나 집단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조직은 개인학습, 집단 및 팀학습, 조직학습의 활성화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학교조직이 학습조직으로 된다는 것은 학교조직의 구성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고, 학교조직 차원의 정보와 지식을 창출,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김희규, 2007).

3.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학습공동체의 역량은 구성원의 전문성에서 비롯된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연구 및 연수, 장학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이에 기존의 전문성 개발은 '학습'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관료제'에서 '학습하는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가능하다. 이처럼 학교가 학습조직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교사는 성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책무성을 갖게 되고 개인과 조직의 역량은 축적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교사중심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더십 측면, 문화적 측면, 지원지원적 측면, 평가·환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십 측면에서 학교구성원들 간에 적절한 권한위임(empowerment)을 통해 전문적 동료관계를 형성하고 학교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권한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전통적 학교조직과는 달리 전문가학습공동체에서는 학교장이 학교구성원들과 학교 비전 설정 등과 같은 중요한 교육관련 사안들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나눠 갖는 공유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교과연구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장은 학교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배분하여 자기 리더십(self-leadership)을 신장시키고,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상향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장의 권한위임(empowerment)을 통한 분산적 리더십(distributed leadership)의 실행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학교조직의 경우,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의사결정구조에서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 이에 반해 학습공동체에서는 학교장이 학교구성원들과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고 나눠갖는 공유된 리더십(shared leadership)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학교구성원 개개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공동체의 힘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협력 문화(collaborative culture)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가학습공동체의 경우, 학년 단위 또는 학교 전체 차원의 공식·비공식적 잣은 모임을 통해 교수·학습 및 교육관련 사안들을 함께 탐구하고 학습함으로써 개인 및 학교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구성원들이 함께하는 탐구와 학습을 통해 교육관련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및 가정들을 검증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유용한 실천적 지식들을 공유함으로써 학교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원지원적 측면에서 교육청 및 학교장은 교사들 간의 협력을 통한 탐구 및 학습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장소, 지금 그리고 교육실천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구성원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교육경험의 공유와 교육실천에 대한 반성은 충분한 시간 및 장소 확보 등과 같은 지원이 요구된다(sergiovanni, 1994). 따라서 교육청 및 학교장은 교사들의 공동 탐구 및 협력 학습을 위해 과다한 수업부담과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혁신은 학교조직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지역사회와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원과 전문역량을 학교교육에 동참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평가·환류적 측면에서 교사들 간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수업공개를 통한 실천적 지식의 검증을 통해 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실천 및 개혁실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척도는 학생들의 학습(student learning)이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체제 아래에서 학교 개선을 위한 시도는 학생들의 학습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에 의해 평가된다.

이처럼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자신들의 교육실천 및 개혁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모색해 나가는 효율적인 평가·환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실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육실천 및 개혁실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이경호, 2011).

이상의 네 가지 학습조직 구성요소를 토대로 미래학교교육의 변화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의 학교교육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목표, 가치, 사명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비전 공유가 중요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구성원 사이에 공유되는 사명, 비전, 가치, 목표의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이석열, 2015). 학교교육이 위치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권한 위임(empowerment)을 통한 교사들의 동료관계를 기초로 교육의 가치, 의미, 목적을 공유하는 학교공동체를 형성(Jazzar & Algozzine, 2007) 하기 위해 교사들과 협력하고 교사들 또한 이들 지도자들과 밀접히 상호 교류함으로써 조직 내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문화는 조직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어 왔으며, 학교효과성 관련연구에서도 학교의 조직문화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Hoy & Miskel, 2008). 마찬가지로 전문가학습공동체 형성뿐만 아니라 학습문화 구축에 있어서도 상호협력적인 조직문화는 필수요건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체가 추구하는 비전과 교육목표는 교육공동체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는 학교행정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육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비전과 목표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 교과연구 학습조직의 구성요소

구분	일반적 정의	학교에서의 의미
비공식 학습문화	일상의 업무 과정을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함	수업이나 생활지도 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시행착오, 실수, 학생들의 반응 등)을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권장함.
대화와 협력	열린 마음과 열린 의사소통, 상호조력을 통한 성장 추구	비공식적 모임이나 교과 및 학년협의회와 같은 공식적 모임에서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잠재적으로 체득

지식공유 시스템	업무경험으로부터 나온 지식과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의 실패 사례, 교훈, 아이디어와 같은 각종 자료를 저장할 뿐 아니라 학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교사의 임파워먼트	비전을 공유한 구성원이 조직 운영에 참여하는 정도	교육목표 설정, 교육과정, 교사연수 등 공식적 조직의 제반 교육활동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교사가 참여하거나 접근하는 정도
학교장 학습리더십	학습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역할	교사들을 위한 학습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역할(예: 교사 간 협력체제 강조, 교실 수업 준비 및 학습기회 지원 등)
시스템 연계	시스템 사고에 의한 조직 운영	학교에서 일련의 변화를 도모할 때 학교 안팎의 구성요소(예: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인근학교, 지역사회 등)들의 상호연계성을 파악하는 것

출처: 김영화 외(2011).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가 교사전문성에 미치는 효과.

셋째,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구조는 위계적 조직보다 개방적이고 신뢰적인 조직문화 풍토를 지닌 유기적인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기적인 조직구조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의 확보와 조직혁신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정 등을 촉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조직의 융통성과 창의성을 유발시켜 준다(김영화, 2005). 조직 내부에서 학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명령통제 중심의 수직적 조직구조에서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되는 수평적 팀조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위계적이고 획일화된 조직 구조에서 탈피하여 일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자발적, 혁신적으로 참여하는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넷째, 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학교장의 역할은 교사들 각자가 교직에 대한 가치를 찾게 하는 데 있다. 또한 학교장은 교사들 간의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학교장은 조직 전체를 통하여 듣고 배우는 효과적인 모델이어야 한다. 학교장은 교사들의 전문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리더로서의 교장의 관심은 구체적이며 실행은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교사의 역할 측면에서 교사들이 팀 학습 활동을 하는 본질적 의미를 찾고,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우선 자신의 일을 분석해야 한다. “나는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나는 학생에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수업에서 다루었던 모든 것들, 이를테면 숙제, 견학, 토의 등을 모두 재검토를 해야 한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고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팀의 수행까지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때, 개인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사는 특별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본질적 의미와 목적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교사들과도 만나게 된다.

끝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위한 시간 확보, 협동적 문화 형성, 학습의 집중하기, 학습공동체에서의 의사소통 연결 링크, 지속성 등의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이석열, 2015).

IV. 맷으며

21세기는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시대이며, 새로운 변화 양상은 학교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의 학교는 학습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존립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학교조직의 제도적 개선과 구성원의 역할 변화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김희규, 2013).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 제한점으로 인해 교사들의 의도와는 달리 교사의 폭 넓은 경험, 지식, 태도와 인식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무엇보다도 교사를 스스로가 교사 전문성 개발의 의의와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 행정적 여건 마련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원의 전문성을 연착륙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제가 한국교총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연구운동으로 사료된다.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교원역량의 집중화에 질적 양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해온 바는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존 교육체제의 대응전략과 동시에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신패러다임의 적용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시점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대주제 또한 “변화하는 사회·선도하는 현장교육·꿈을 이루는 미래 학생”의 슬로건으로 선정되었는 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거시적 안목과 교육 대전환의 인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학교가 감당해야 할 과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학교교육과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다. 사회 환경이 급진전되면서 타율적인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자율적 학습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구성원들이 업무 활동과 함께 학습활동을 체질화시킬 수 있는 사람, 구조, 기술 및 과업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효과성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교사의 현장교육운동은 성공적인 수업활동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개선, 그리고 성공적인 학교에서 기본적인 요건으로 다루어져왔으며, 최근에는 전문적 학습에 대한 접근을 보다 탈중앙집권적·사회문화적으로 접근되고 있다(Dinham, 2009:139). 이런 점에서 학습공동체는 조직과 교사 개인 및 집단의 역량을 증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Dinham, 2009:141).

미래의 학교교육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학습능력과 학습 자발성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주체적 학습활동을 정당화하는 학습주의 철학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습주의는 인간을 교육받아야 할 교육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스스로의 학습능력과 학습 자발성을 지니고 있는 학습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주의는 학교교육을 학습자 스스로 수행하는 학교공동체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또한 미래 학교에서는 개방체제로의 전환으로 자율학습, 개별화 학습의 형태를 지향하여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제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끝으로 2021년과 2022년 현장교육연구운동의 대주제가 주는 메시지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학교교육의 체질 변화와 함께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를 선도하는 현장교육의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금용한(2019). 2019~2020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 해설 자료집.
- 김희규(2013).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습조직의 이론적 함의.” *교육사상연구* 제27권 제1호. 69–91.
- 김희규(2007). *학교조직과 학습조직*.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김영화 외(2011).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가 교사전문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교육연구*, 46(3), 62–81.
- 김영화(2005).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 중등학교의 조직학습 촉진 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15권 제3호, pp.105–128.
- 이경호(2011). 전문가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장의 역할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19(3), 195–221.
- 이석열(2015).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방안. *교육정책네트워크 아슈페0|퍼 1*, 6–38.
- 이찬승 외 역(2015). *학교교육 제4의 길. 21세기 교육연구소*.
- Dinham, S.(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ibuted leadership and action learning in schools: A case study. In A. Harris(Ed.), *Distributed leadership: Different perspectives*(pp.139–154).
- Hord, S.(2004).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An overview. In S. Hord(ed), *Learning together, leading together: Changing schools through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Hoy, W. K., & Miskel, C. G (2001).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6th ed.), New York: McGraw-Hill, Inc.
- OECD(2009). Creating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s: First Results from TALI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546. OECD.
- Jazzar, M., & Algozzine, B.(2007). *Keys to Successful 21st Century: Educational Leadership*, Pearson Education, Inc.
- Senge,P.M.(1990b). The fifth discipline fieldbook :The leader's new work: Building earning organizations. Sloan, Management Review: Reprint Series, 32(1).
- Sergiovanni, T. J. (1994). *Building community in school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현장교육연구운동 관련 법령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 ①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해당 직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1.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 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도규모 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 ② 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 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 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 ①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연구대회입상실적은 다음 표에 따라 평정하되,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만을 반영한다.

입상등급	전국규모 연구대회	시·도규모 연구대회
1등급	1.50 점	1.00 점
2등급	1.25 점	0.75 점
3등급	1.00 점	0.50 점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9조(연구실적평정대상 연구대회)

- ① 승진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 연구대회는 연구대회관리규정 별표1과 같다.

[별표 1]

연번	대회명	개최조직
1	생략	생략
2	전국교육자료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3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4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5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교육부훈령 제320호)

-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연구대회는 동 규정을 적용받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개최 경과

회수	기간	장소	주제
1	1952. 10. 27 ~ 10. 28	공주	교육과정의 개조
2	1954. 10. 7 ~ 10. 9.	서울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3	1955. 10. 24 ~ 10. 26	서울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4	1958. 10. 28 ~ 10. 29	서울	교육으로 도의사회 건설하자
5	1958. 10. 29 ~ 10. 31	서울	교육으로 자립경제 수립하자
6	1962. 11. 5 ~ 11. 7	서울	교육의 민주화, 교육의 과학화, 교육의 생활화
7	1963. 10. 23 ~ 10. 25	서울	과잉한 학습인구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 능률을 올릴 것인가.
8	1964. 10. 21 ~ 10. 23	서울	교육의 질적향상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9	1965. 10. 15 ~ 10. 16	광주	경제성장에 직결되는 교육실천
10	1966. 10. 17 ~ 10. 18	서울	실천에 직결되는 교육
11	1967. 10. 18 ~ 10. 19	대구	인간교육과 생산을 위한 학습지도의 개선과 효율화
12	1968. 10. 8 ~ 10. 9	서울	효율적인 인간교육과 생산교육
13	1969. 11. 6 ~ 11. 7	전주	학교교육에 있어서 국민교육현장 이념을 구현하는 방안
14	1970. 11. 12 ~ 11. 13	서울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
15	1971. 11. 1 ~ 11. 2	춘천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
16	1972. 11. 29 ~ 11. 30	서울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
17	1973. 10. 18 ~ 10. 19	청주	민족주체성을 구현하는 교육
18	1974. 10. 17 ~ 10. 18	서울	민족주체성을 구현하는 교육
19	1975. 10. 16 ~ 10. 17	부산	인간성 확립을 위한 교육
20	1976. 10. 14 ~ 10. 15	서울	인간성 확립을 위한 교육
21	1977. 10. 13 ~ 10. 14	대전	미래에 대응하는 교육
22	1978. 10. 27 ~ 10. 28	서울	미래에 대응하는 교육
23	1979. 10. 24 ~ 10. 25	진주	교육과 발전
24	1980. 11. 6 ~ 11. 7	서울	교육과 발전
25	1981. 11. 12 ~ 11. 13	수원	참사람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혁신
26	1982. 11. 18 ~ 11. 19	서울	참사람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혁신
27	1983. 11. 10 ~ 11. 11	광주	평등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28	1984. 11. 9 ~ 11. 10	서울	평등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29	1985. 11. 8	서울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
30	1986. 11. 6 ~ 11. 7	울산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
31	1987. 11. 5 ~ 11. 6	대구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32	1988. 11. 4	서울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개최 경과

회수	전시기간	장소	주제
33	1989. 11. 20	서울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34	1990. 11. 26	서울	민주발전 촉진을 위한 교육
35	1991. 11. 25	서울	민주발전 촉진을 위한 교육
36	1992. 11. 21	서울	민주발전 촉진을 위한 교육
37	1993. 11. 22	서울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 추구
38	1994. 11. 21	서울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 추구
39	1995. 11. 20	서울	교육의 수월성을 지향하는 학교현장의 개선
40	1996. 5. 3	서울	교육의 수월성을 지향하는 학교현장의 개선
41	1997. 5. 9	서울	교육의 수월성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의 추진
42	1998. 5. 8	인천	교육의 수월성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의 추진
43	1999. 4. 30	청주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44	2000. 4. 29	대전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45	2001. 4. 28	대구	교육의 본질회복으로 새천년의 기반을 구축하자
46	2002. 4. 27	전주	교육의 본질회복으로 새천년의 기반을 구축하자
47	2003. 4. 26	서울	학습과 삶을 연계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구현
48	2004. 4. 24	광주	학습과 삶을 연계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구현
50	2005. 4. 30	수원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
50	2006. 4. 29	대구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
51	2007. 4. 28	천안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
52	2008. 4. 26	대전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
53	2009. 4. 25	서울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54	2010. 4. 24	청주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55	2011. 4. 9	광주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현장교육이 희망입니다
56	2012. 4. 28	대구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현장교육이 희망입니다
57	2013. 4. 20	대전	살아있는 교육, 실천하는 교사, 선생님이 희망입니다
58	2014. 4. 5	서울	살아있는 교육, 실천하는 교사, 선생님이 희망입니다
59	2015. 4. 18	서울	연구하는 선생님, 살아나는 교육, 변화하는 학교
60	2016. 4. 23	서울	연구하는 선생님, 살아나는 교육, 변화하는 학교
61	2017. 4. 22	서울	연구하는 선생님, 배움이 있는 수업, 생동하는 교실
62	2018. 4. 28	안양	연구하는 선생님, 배움이 있는 수업, 생동하는 교실
63	2019. 4. 27	안양	따뜻한 마음, 새로운 생각, 실천하는 교육

전국교육자료전 개최 경과

회 수	전시기간	장 소	전시 자료
1	1970. 11. 9 ~ 11. 13(5일간)	건국대학교 낙원분교	89점
2	1971. 10. 19 ~ 10. 25(7일간)	교육회관(광화문 소재)	83점
3	1972. 11. 24 ~ 11. 30(7일간)	국립공보관	78점
4	1973. 9. 12 ~ 9. 19(8일간)	"	80점
5	1974. 11. 11 ~ 11. 16(6일간)	"	80점
6	1975. 11. 15 ~ 11. 21(7일간)	국립과학관	80점
7	1976. 11. 14 ~ 11. 21(8일간)	"	110점
8	1977. 11. 11 ~ 11. 18(8일간)	"	100점
9	1978. 11. 10 ~ 11. 17(8일간)	"	120점
10	1979. 12. 19 ~ 12. 22(4일간)	덕수국민학교	120점
11	1980. 12. 9 ~ 12. 13(5일간)	국립과학관	118점
12	1981. 12. 8 ~ 12. 13(6일간)	"	143점
13	1982. 12. 7 ~ 12. 12(6일간)	"	143점
14	1983. 12. 6 ~ 12. 11(6일간)	"	154점
15	1984. 12. 4 ~ 12. 10(7일간)	"	156점
16	1985. 12. 2 ~ 12. 8(7일간)	"	154점
17	1986. 12. 1 ~ 12. 7(7일간)	"	154점
18	1987. 11. 30 ~ 12. 6(7일간)	"	169점
19	1988. 11. 28 ~ 12. 4(7일간)	"	151점
20	1989. 11. 13 ~ 11. 19(7일간)	한국교총 특설전시장	166점
21	1990. 11. 19 ~ 11. 25(7일간)	"	170점
22	1991. 11. 18 ~ 11. 24(7일간)	"	168점
23	1992. 11. 16 ~ 11. 20(5일간)	"	185점
24	1993. 11. 15 ~ 11. 21(7일간)	"	180점
25	1994. 11. 14 ~ 11. 20(7일간)	"	186점
26	1995. 11. 13 ~ 11. 19(7일간)	"	193점
27	1996. 11. 4 ~ 11. 10(7일간)	"	209점
28	1997. 11. 3 ~ 11. 9(7일간)	"	216점
29	1998. 10. 19 ~ 10. 25(7일간)	"	226점
30	1999. 10. 11 ~ 10. 17(7일간)	"	226점
31	2000. 10. 9 ~ 10. 15(7일간)	"	228점

전국교육자료전 개최 경과

회 수	전시기간	장 소	전시 자료
32	2001. 10. 8 ~ 10. 15(8일간)	"	230점
33	2002. 10. 7 ~ 10. 14(8일간)	"	229점
34	2003. 10.13 ~ 10. 19(7일간)	"	236점
35	2004. 10. 11 ~ 10. 17(7일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장(대전)	219점
36	2005. 10. 17 ~ 10. 23(7일간)	한국교총 특설전시장	208점
37	2006. 10. 16 ~ 10. 22(7일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장(대전)	200점
38	2007. 10. 29 ~ 11. 4(7일간)	"	196점
39	2008. 10. 19 ~ 10. 25(7일간)	한국교총 특별전시장	163점
40	2009. 10. 18 ~ 10. 24(7일간)	"	199점
41	2010. 10. 17 ~ 10. 23(7일간)	"	203점
42	2011. 10. 17 ~ 10. 22(7일간)	"	204점
43	2012. 10. 8 ~ 10. 12(7일간)	엑스포과학공원내 대전교통문화센터(대전)	162점
44	2013. 10. 8 ~ 10. 19(12일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대전)	207점
45	2014. 10. 7 ~ 10. 18(12일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대전)	206점
46	2015. 10. 12 ~ 10. 24(13일간)	엑스포과학공원내 한빛립.첨단과학관(대전)	224점
47	2016. 10. 17 ~ 10. 22((6일간)	경인교육대학교 체육관(경기)	234점
48	2017. 10. 23 ~ 10. 28(6일간)	한국교원대학교 체육관(충북)	184점
49	2018. 10. 21 ~ 10. 26(6일간)	한국교원대학교 체육관(충북)	147점
50	2019. 10. 20 ~ 10. 25(6일간)	한국교원대학교 체육관(충북)	128점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주관처 안내

구분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주관처	전화번호	주관처	전화번호
전국대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연구국	02-570-5662~3	좌 동	
서울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2-735-8916	–	
부산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51-467-3206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	051-860-6123
대구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53-655-2680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교수학습지원부	053-231-1374
인천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32-876-0253	좌 동	
광주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62-528-6447	좌 동	
대전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42-638-6168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지원부	042-865-6314
울산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52-267-2392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부	052-220-1652
시·도 대회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44-864-8970~1	–
	경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31-269-2984	좌 동
	강원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33-254-2948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과학정보교육과
	충북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43-217-2853	좌 동
	충남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41-631-3671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기획정보부
	전북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63-253-9602	좌 동
	전남	전라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62-524-1276	좌 동
	경북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54-652-8797~8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교육과정부
	경남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55-263-1842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064-758-6249	좌 동



한국교총 전자도서관 이용 안내

한국교총은 선생님들의 현장연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자도서관(온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 홈페이지에 서 '전자도서관'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장교육연구대회 연구보고서와 교육자료전 자료설명서,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연구보고서의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교 현장교육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로그인 ▶ 전자도서관

열람가능 자료

- ◆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연구보고서
- ◆ 전국교육자료전 교육자료설명서
- ◆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연구보고서
- ◆ 연구대회 심사평 등

논문 다운로드 방법

- ◆ 파일 형태 : PDF 파일
※ 컴퓨터에 PDF 뷰어 프로그램(Acrobat Reader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 검색 방법
 - 한국교총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검색]에 원하시는 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 한국교총에서 주최하는 연구대회(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초등교육연구대회) 등급별 입상작에 대한 검색은 상단 메뉴 – [초등교육연구보고서] [현장교육연구보고서] [교육자료설명서]를 이용하십시오.
 - 제목/저자명을 클릭 후 원문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회원 로그인 필요).

기본 검색 활용방법

- ◆ 분과, 등급, 발행연도 및 기타 검색어 등을 입력한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

2021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추진요강

발행월 2020년 3월

발행인 하윤수

발행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연구국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 06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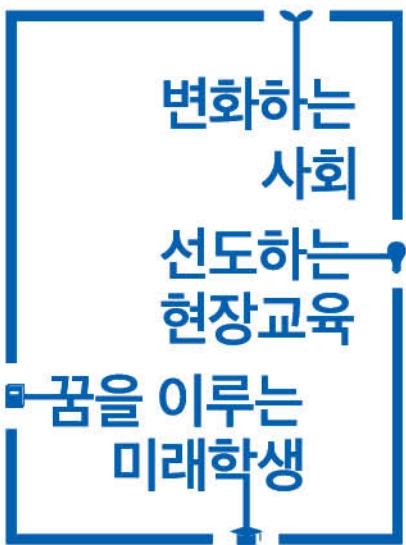
TEL : 02) 570-5662

FAX : 02) 572-0292

http : www.kfta.or.kr

등록 1951. 12. 1. 제1-74호

인쇄처 (주)타라그래픽스 02) 569-4200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